

연일 치솟는 환율 5년 8개월만에 최고치 찍어

위험자산 회피 심리 지속과 대북 리스크 영향 1270원까지 갈수도...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로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더니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더욱 큰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북 리스크와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어 원화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들어 120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의 오름폭은 약 보름간 34원(종가 기준)에 달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장중 1239원대까지 치솟으며 한 때 1240원대를 넘보기도 했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1234.4원 선에서 일터락했지만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하락 위험과 산유국 간 원유 감산합의 난항에 따른 유가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독 원화값이 더 출렁이는 이유는 대내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핵 우려에

이어 미국의 대북제재법 발효, 북한의 테러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약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도한 채권은 총 3357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채권투자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면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외국인의 달러 매수(원화 매도)세는 더욱 두드러졌고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펀더멘탈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상황이지만, 역외에서의 강한 달러 매수로 인한 상승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금리인하 전망과 주식채권 자금 이탈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환율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에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추가 이탈이 커질 수



5G 연계 서비스 시연 20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셀로나 람블라스 거리(Rambblas Street)에서 SK텔레콤 직원들과 모델들이 전시 개막에 맞춰 5G와 IoT, 플랫폼 등 주요 전시품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있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관관계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지 오래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환차손에 민감한 외국인들의 주식·채권매도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의 일시적인 반락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상승(원화값 하락)세를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내외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향후 원화값이 1240~1270원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아직 외국인 채권 자금 이탈 우려가 남아있고, 대북 리스크 등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내 1270원까지 갈 수 있다"며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달러 자체의 상승 동력이 크지 않고 유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00원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 ICT 육성에 1000억원 지원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K-글로벌 프로젝트' 세부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간 통합 등으로 규모를 확대해 16개 사업 1061억원 규모(유자 600억원 포함)로 구성됐다.

ICT 기반 우수 기술창업가·벤처기업·재도전기업인 등을 선발,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책 지원 역량을 단일 브랜드 아래 집결하고 각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후속연계 지원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세계에 도전하는 1000개 벤처를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신모델 선보여

슈퍼카 브랜드인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지난 19일 국내에서 첫 전시장을 개장하고 새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람보르기니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전시장인 '람보르기니 서울'을 마련하고 개장식을 열었다. 수입차 전시장들이 많은 삼성동 영동대로에 터를 잡고 지난달부터 신규 딜러사가 된 SQDA모터스가 운영하게 된다.

SQDA모터스는 말레이시아계 화교 자본인 레이싱홍 계열이 세운 딜러사다. 당초 화장품기업인 참존의 계열사 참존인포터가 람보르기니를 수입·판매해왔지만 지난해 경영난으로 인해 SQDA모터스에 판매권을 넘겼다.

새로 문을 연 서울 전시장은 약 495.87㎡(150평) 규모로 람보르기니의 최신 모델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람보르기니는 새 딜러의 판매를 계기로 올해 국내에서 44대까지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람보르기니는 이날 개장식에 맞춰 우라칸 쿠페의 후륜구동 모델인 '우라칸 LP 580-2'를 국내에서 출시했다.

우라칸 LP 580-2는 5.2 L 10기통(V10) 자연흡기 엔진을 통해 58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다. 옵션을 포함하지 전 기본 차량 가격은 2억99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1인가구 보험상품 개발해야”

2020년 전체의 30% 전망, 사적 안전망 구축 필요

꾸준히 증가하는 1인 가구 비중에 맞춰 해당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 가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은 27.1%로 2005년 20.0%보다 7.1%포인트 올랐다.

4년 뒤인 2020년에는 이 비중이 29.6%,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1인 가구의 특징은 다인 가구에 비해 월세에 많이 살고 의식주 관련 필수지출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의료비 지출 발생 시 기초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저연령 1인 가구는 소득 및 지출 불확실성과 함께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고연령의 경우 의료비 및 장기간병 등 갑작스런 의료지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인 가구 특화 보험상품은 연령,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나뉜다.

저연령 1인 가구 중 중·고소득층에는 정액형 건강보험, 개인연금보험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에는 소득보상 중대질병 보험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민근기자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6월부터 보호

변액보험(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이 오늘 6월부터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최저보장 보험금은 펀드 실적에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저축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과 최저보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위는 채권매매·증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부보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비보호예금자에게만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예금저축보호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상대방이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보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도 바뀐다.

기준에는 납입자본금(주주가 회사에 낸 돈)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인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예컨대 A은행의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이라면 기존 예보 출연금은 3000억원의 1%인 30억원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A은행의 예보 출연금은 1000억원의 1%인 10억원이 된다.

금융위가 정한 시중은행의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